

2015

草田纖維·퀵트博物館 開館 17周年 紀念展  
한국·라오스의 민족의상 서울에 오다  
Collection of Korea · Laos Minorities Clothes in Seoul

모시는 글

草田纖維·퀵트博物館開館 17周年을 맞이하여 2015〈한국·라오스의 민족의상 서울에 오다〉特別企劃展을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나 손 쉽게 들 수 있는 [천과 바늘과 실의 조화] 特別企劃展으로 纖維工藝에 關心을 갖으신 學者 學生 纖維工藝 愛好家들에게 즐거움과 比較 研究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여 주신 잔다손이다봉 여사의 淸雅한 作品을 갖고 特別 展示會를 草田纖維·퀵트博物館에서 開催하게됨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女史의 뜻 깊은 作品 60여점 出品을 감사드리며 [纖維藝術은 그 나라의 歷史이며 國境이 없다]는 말 소중히 간직하고 이 展示會가 契機가 되어 韓國과 라오스의 國際親善文化交流을 圖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시를 위해 수고하신 關係者 여러분께 謹言으로 감사드립니다. 貴下의 參與가 큰 힘이 되니 꼭 자리를 함께하여 빛내주시고 激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年 4月

草田纖維·퀵트博物館 館長 金順姬

인사 말씀

라오스사람을 대신하여 한국분들에게 섬유수집가 잔다손이다봉 인사합니다. 저는 수집가이며 호아이홍 직업훈련센터 소장으로서 라오스의 傳統織組技術을 研究하고 開發에 努力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傳統衣裳에 맞는 天然染色을 研究한 纖維工藝作品전시회를 草田纖維·퀵트博物館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金順姬 館長의 努苦와 好意에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展示會가 계기가 되어 韓國의 傳統織組技術 天然染色技術이 活潑하고 多様な 韓國의 文化를 받아들여 라오스의 氣候 風土에 알맞는 獨創의인 文化를 繼承發展하여 韓國과 라오스 纖維織造染色 文化交流에 큰 역할을 다짐하며 라오스의 纖維技術의 發展에 거듭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年 4月

호아이홍 직업훈련 센터장 잔다손이다봉

展示期間

2015年 4月 2日(木) ~ 8月 31日(月)

展示時間

10:00 - 18:00

場 所

草田纖維·퀵트博物館

02-753-4074~5

主 催

草田纖維·퀵트博物館, (社)韓國纖維·퀵트文化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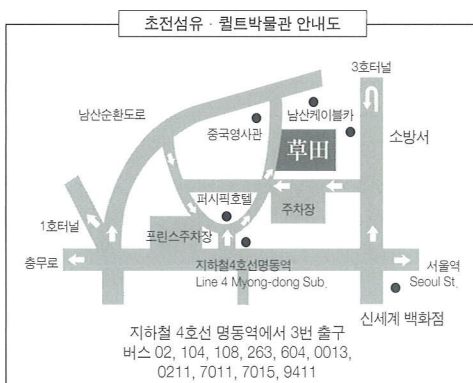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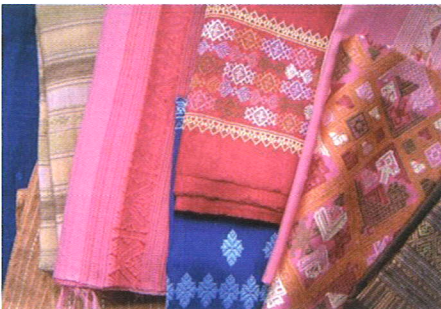
後 援

文化觀光部, 서울特別市, (社)韓國博物館協會,

(社)韓國私立博物館協會, (社)韓國女性團體協議會,

(社)韓·日女性親善協會, (社)韓國女性消費者聯合,

(社)韓國服飾學會, (社)國際 존타 서울1클럽, 女性新聞社.



100-041 서울 中區 退溪路 18-66 (南山洞 1-20) Tel : 02)753-4074~5



草田纖維·퀵트博物館

<http://www.jculture.co.kr>



社團 韓國纖維·퀵트文化協會

法人 會長 金順姬

草田纖維·퀵트博物館  
第一纖維·퀵트디자인學院  
第一編物學院·第一編物  
文化外國語學院  
<http://www.jculture.co.kr>

100-041 서울 退溪路 18-66 (南山洞 1-20)  
Tel : 02)753-4074~5  
Fax : 02)753-4254  
e-mail : jeilmil@hanmail.net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3번 출구

버스 02, 104, 108, 263, 604, 0013, 0211, 7011, 7015, 9411